

“스마트폰 넘어 새 혁신 추구”

노태문 삼성사장 첫 메시지

무선사업부장으로 언팩 첫 참석
향후 10년 혁신 위한 청사진 제시

지난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으로 선임된 노태문 신임 사장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갤럭시 언팩(공개) 행사를 앞두고 앞으로 스마트폰을 넘어선 새로운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 사장은 9일 ‘갤럭시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삼성전자 뉴스를 기고문에서 “올해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으로 언팩에 참석하는 첫해”라며 “이번 언팩에서 향후 10년의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책임과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고문은 노 사장의 무선사업부장 선임 이후 첫 외부 메시지다.

노 사장은 2011년 갤럭시 노트 탄생, 2019년 갤럭시 폴드 탄생을 지난 10년간의 혁신 사례로 거론한 후 올해에는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융합을 통해 새롭게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노 사장은 “앞으로는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 경험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안전한 사용자 경험일 것이고, 이를 통해 기기와 사람, 비즈니스와 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령탑에 노태문(52) 사장을 선임하는 등 2020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사진은 무선사업부장에 선임된 노태문 IM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연합뉴스

뮤니티를 넘나드는 더욱 지능적인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지능적인 연결을 위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고 더 많은 사용자가 진정한 5G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요 통신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사장은 “이번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업계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카메라 사양을 대폭 확충한 갤럭시 S20 시리즈와 함께 새 클램셀(조각감질) 디자인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를 발표한다. 노태문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신제품을 소개하며 정식 데뷔전을 치른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U+ “골프 시청하고 경품 받으세요”

‘U+골프’ 설치 이용자 누구나 참여

LG유플러스는 골프중계 서비스 ‘U+골프’의 오리지널 콘텐츠 ‘골프 연구소’ 시청 시 아이언세트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 사용자 중 24일까지 U+골프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 노출된 ‘골프 연구소! 궁금해요’ 이벤트 메뉴 내 영상을 시청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는 사용 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U+골프 설치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 타이틀리스트 718 AP2 아이언세트 4-



모델들이 골프중계 서비스 ‘U+골프’의 오리지널 콘텐츠 ‘골프 연구소’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P(1명) ▲ 타이틀리스트 TS2 드라이버 (1명) ▲ 다이아윈스 SL2 싱글클래스 세트와 웨지세트(1명) ▲ 다이아윈스 슬라이스 방지 드라이버(2명) ▲ 다이아윈스 골프공과 미디어핑, 썬크림으로 구성된 선물세트(100명)를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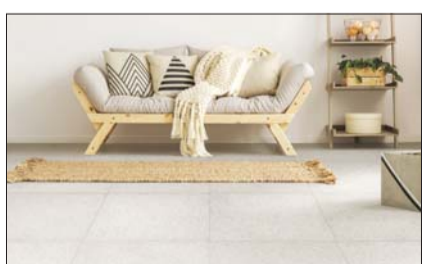
/김나인 기자 silkni@

LG하우시스, 바닥재 ‘은행목·뉴청맥’ 리뉴얼

제품 표면에 안티슬립 기능 적용

LG하우시스는 인기 바닥재 제품 LG Z:IN(LG지인) 시트 바닥재 은행목·뉴청맥 2종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목’과 ‘뉴청맥’은 중·저가 바닥재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 높은 시트 바닥재로 꼽히고 있는 인기 제품이다.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 모두 표면에 미끄럼을 줄여주는 안티슬립 기능을 적용, 합판마



‘LG Z:IN 시트 바닥재 은행목 - 샌드스톤’ 제품이 적용된 거실 공간.

루 대비 약 1.2배 우수한 미끄럼 방지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美 주지사들과 친환경 비전공유

수소연료·미래모빌리티 혁신 강조

전미 주지사협회 동계회의 참석
넥쏘 공기정화 기능 친환경성 강조
美 수소전기차 인프라 확대 기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전미 주지사협회 동계 회의’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미래 수소사회 및 모빌리티 혁신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전미주지사협회 회의’는 미국 50개 주와 5개 자치령 주지사들이 매년 두 차례(동계/하계) 모여 주 정부간 협력과 정책이슈 해결을 논의하고,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자리다.

2월 7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미주지사협회 동계 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공식 리셉션에는 행사 주최측인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와 전미주지사협회 의장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30여개 주 주지사, 주 정부 관계자, 초청받은 한국 경제계 주요 인사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리셉션은 처음으로 한국대사관에서 마련돼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주지사, 주 정부 주요 인사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한국기업인을 대표한 건배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시는 주지사 여러분들께 감사한다”며 “우리가 공유한 가치에서 비롯된 우



정의선 수석부회장(왼쪽)과 전미주지사협회 의장인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국의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주지사들과 미래 수소사회 비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미국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보급 확대 노력도 언급했다.

현대차는 주미 한국대사관저입구에서 수소전기차 넥쏘 공기정화 기능을 보여주며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넥쏘 공기흡입구에 연결된 투명 풍선 안의 오염된 공기가 3단계 공기정화시스템을 거쳐 깨끗하게 바뀐 뒤 배기구에 연결된 풍선에 들어가는 과정을 시연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주지사와 주 정부 관계자들이 수소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미국 내 수소전기차와 수소 인프라 확대가 가속화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주지사들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 모빌리티 혁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애플티브사와 40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 합작 법인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했다. 또 우버와 UAM 분야 전략적 제휴를 했고 미국에 모션랩을 세워 LA를 중심으로 카셰어링 등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미주지사협회 회의는 미국 50개 주와 5개 자치령 주지사들이 매년 두 차례 모여서 주 정부간 정책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각국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자리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루브, 메콩사 지분 49% 인수 동남아 유희유시장 진출 기반 마련

해외 유희유 기업에 첫 직접 투자
시설확대·설비교체 등 경쟁력 강화
아세안 전역으로 사업 확대 추진

SK루브리컨츠가 아세안 유희유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SK이노베이션은 9일 유희유 사업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가 베트남 최대 민영 유희유 업체인 메콩(Mekong)사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SK루브리컨츠 사장, 황 레 메콩사 회장 등 양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루브리컨츠가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외에 합작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유희유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콩사는 2018년 기준 베트남 유희유 시장 점유율 6.3%를 확보하고 있으며 2개 탱크터미널, 유희유 제조 공장 및 물류센터, 베트남 전역에 12개 유통·판매지사 등 7개 유희유 사업 관련 관



지난 7일 계약 체결식을 마친 뒤,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왼쪽 네번째)과 황 레 메콩사(왼쪽 세번째) 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사가 있다.

향후 유희유 사업 확대를 위해 유통·판매 회사를 메콩사 자회사로 통합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날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체결식에서 “메콩사의 현지 생산·판매 인프라와 SK루브리컨츠의 SK ZIC 브랜드, 제품 기술 역량을 합쳐 베트남 고급 유희유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과 나아가 아세안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레 메콩사 회장은 “양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 온 협력 모델이 결실

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양사가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SK루브리컨츠가 수출하는 유희유 제품을 판매하고 SK루브리컨츠가 수출하는 유희유를 메콩사가 제조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장 시설확대, 노후 설비 교체, 판매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등 기존 인프라를 개선해 베트남뿐 아니라 아세안 전역으로 사업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